

전문대학 신입생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College Freshmen's Intention to Drop Out

송영아*, 김신애**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Young A Song(sya414@ansan.ac.kr)*, Sinae Kim(stream21c@sn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신입생들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A전문대학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설문지 1369부를 t-test, ANOVA 와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개인 요인, 가정 관련 요인, 교육기관 관련 요인, 사회 관련 요인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개인 요인 중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반적인 대학 만족도, 전공이 본인과 맞다고 생각하는 정도 등이었다. 둘째, 가정 관련 요인 중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 가족이 대학생들을 잘하도록 독려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기관 관련 요인 중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학과의 교육과정 만족도, 자신이 속한 학과 소속감 정도, 교수가 진로 비전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정도, 대학 교육시설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 관련 요인 중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진학이 인생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학업지속을 위해 교수, 교직원, 대학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하고 신입생들의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학업중단 | 학업중단의도 | 전문대학 | 신입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which influence dropout intention of college freshmen. For this purpose, the freshmen were collected from A University in Gyeonggi Province from October 16 to 30, 2017. We analyzed 1,369 data in terms of the individual, family,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ocial factors using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dividual factors which influence dropout intention of freshmen are overall university satisfaction, the degree to which they think their majors fit them, the degree to which they are willing to recommend their department to others, a plan to dropout, and a plan to take a leave of absence. Second, the family factors are the encouragement of parents and family to do well in college. Third, educational institution factors are satisfaction with the curriculum of majors, a sense of belonging to department, the degree to which the professors instill career vision and self-esteem,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facilities. Fourth, social factors are the degree they think going to college was a good choice in their life and the degree they think knowledge learned in college is helpful to them.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ed what to be considered at professors, school personnel, and university level and discussed how to reduce dropout rate of freshmen in university.

■ keyword : | Drop Out | Intention to Drop Out | College | Freshmen |

I. 서론

오늘날 대학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비롯되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은 입학자원 확보가 어렵게 되었고 이는 대학의 예산 확보 문제 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과 대학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18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2010년 이후로 일반대학은 입학자 수가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그 수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은 2018년 입학자 수가 198,110명으로 전년(200,021)대비 1,911명(1%) 감소하였으며 2010년 입학자 수가 249,144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약 80% 감소하였다[1]. 이와 같이 입학자 수의 감소는 전문대학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학자 수 감소 뿐 아니라 학업중단율의 증가도 대학의 존폐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업중단은 대학 재학 중에 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것으로 대학의 재정 및 대학 교육의 질적 확보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등록금 동결 및 인하가 지속되면서 현재 많은 대학들은 재원확보를 위해 입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것과 함께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대학의 재원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학생을 충원하는 것과 함께 재학생의 학업중단율을 낮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들은 대학 학위 취득이 높은 수입을 보장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높이며, 실업률과 범죄율을 낮추는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한다[2-4]. 대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고 학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비단 학생 개인과 대학의 문제일 뿐 만 아니라 사회·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학업중단의도가 있는 학생들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개입을 통해 그들을 교육의 장으로 되돌려야 한다. 학업중단의도는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의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학업중단의도가 있는 학생은 실제 학업중단을 결정할 확률이 높으며 학업중단의도가 없는 학생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계속해서 다닐 확률이 높은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5]. 학업중단의도가 있는 학생들을 대학에서 아무런 관리 없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학생들의 대학생활 부적응은 심화되고, 대학의 붕괴라는 위협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6]. 전문대학교 학생의 학업중단이 1학년 1학기에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대 신입생의 학업중단의도와 관련된 특성 및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신입생을 학업중단으로 이끄는 원인에 대한 이해와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생의 학업중단은 학생 개인의 요인 뿐 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요인과도 관련되어 그 원인이 보다 복잡해졌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학업중단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대학생의 학업중단의도와 관련된 요인도 여러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전문대학생의 학업중단의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 요인만 확인하거나[7] 개인 요인과 교육기관 관련 요인의 두 가지 요인만을 살펴거나[8] 개인요인, 가정 관련 요인, 사회 관련 요인, 교육기관 관련 요인을 모두 다루었지만 요인의 영향도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각 요인에서 학업지속집단과 학업중단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9]. 따라서, 지금까지 전문대학 신입생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요인과 가정, 교육기관, 사회 관련 요인을 모두 살펴보는 연구는 한 편[5] 정도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생의 학업중단의도에 대하여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살핀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대 신입생들의 학업중단의도와 관련 있는 개인 요인을 파악하고 전문대 신입생들의 가정 관련 요인, 교육기관 관련 요인, 사회 관련 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전문대 신입생들의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학업지속을 위한 대학생활 적응프로그램과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학업중단'과 '학업중단의도' 개념

1-1. 학업중단

학업중단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국외에서는 학업중단을 학생이 교육기관을 떠나는 것(institutional departure)과 고등교육의 장을 떠나는 것(system departure)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10]. 또 다른 학자는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유와 특징을 지닌 학생유형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학업중단을 자퇴(drop-outs), 휴학(stop-outs), 선택적 포기(opt-outs), 편입(transfer-outs)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11]. 국내에서도 연구형태에 따라 학업중단을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학업중단과 관련된 개념은 중도탈락(withdrawal), 자퇴(drop-out), 편입학(transfer) 등이 있으며, 이 개념들은 크게 학생들의 학업지속과 학업중단이라는 두 가지 상태로 구분될 수 있다[6].

많은 연구들에서 학업중단과 유사한 용어로 ‘중도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중도탈락이라는 용어는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의 힘에 의하여 학업을 그만두게 되는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패를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02년부터 중도탈락이라는 용어 대신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를 권장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자료나 관련 통계에서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청소년들이 학교와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급증하게 된 것과 관련 있다[12]. 학업중단 용어 사용에 대한 교육부의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여전히 중도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중도탈락’ 또는 ‘학업중단’과 관련한 연구에서, ‘중도탈락’과 비슷한 의미인 ‘drop out’이라는 용어와 함께 ‘유지’나 ‘지속’을 뜻하는 ‘retention’ 또는 ‘persistence’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같은 현상을 연구하면서도 국외의 경우는 ‘학업중단’의 반대 개념인 학업지속에 초점을 두고 ‘유지’ 또는 ‘지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의 교육장면과 연구에서 재고해 볼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탈락’이라는 용어 대신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는, 학생이 재학 중에 자퇴, 휴학 또는 학사경고로 인한 퇴학을 하게 된 경우일지라도 학생 스스로 다른 진로 탐색이나 계획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현상을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학업중단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2. 학업중단의도

학업중단의도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자의적 또는 타의적 이유로 학업중단을 고려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학업중단의도’ 역시 ‘학업중단’과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의 연구형태에 의하여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박은주, 이해경[8]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만둘 목적으로 학교에 등록하지 않거나 연기하여 당해 연도 학기 내에 스스로 자퇴할 계획이 있는지의 영향을 학업중단이라고 정의하였고, 이정기[13]는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느낀 경험이나 학업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잠재적 학업중단의도라고 정의하였다. 김재현[5]은 학업중단의도란 중도탈락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의도라고 정의하였다.

학업중단의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잠재적 학업중단자로서 학업중단의 위험요소를 지니면서 무의미하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무단결석 및 불량한 수업태도 등으로 부적응 양상을 보이는 관심대상학생으로 남게 된다[14]. 또한, 대학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부적응자가 되거나 학교생활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낮은 학업성적을 받게 되어 학업중단의도를 보이게 된다[7].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중단의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은 대학의 학업중단율을 낮추는 물론 학생들의 대학생활의 질을 높여 줄 것이다.

대학생의 학업중단의도를 파악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은 1학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1학년의 대학생활 경험을 ‘1학년 경험(first year experience)’이라고 지칭하면서, 1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유지 및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왔다[15-18]. 국내에서도 대학생의

학업중단 및 학업중단의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년은 1학년이다. 특히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생의 학업중단은 1학년 때 더 많이 발생한다. 4년제 대학생의 학업중단 시기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 까지 고루 분포된 반면, 전문대학생의 학업중단은 1학년 1학기에 70%가 발생했다[19]. 전문대학교 학생의 학업중단이 1학년 1학기에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교 신입생에게 학업유지를 위한 개입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대학생 학업중단 관련 선행 연구

국외의 경우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관한 연구는 Tinto[20] 이후 40여 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Tinto는 학생유지와 관련한 연구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시기별로 세 단계로 정리하였다[20]. 학업중단 관련 연구의 초기단계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학생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기관 선택, 출석수업과 비출석수업 여부, 2년제와 4년제의 차이가 학생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되면서, 학생 삶의 외부적 사건들 뿐 아니라 교실 내 환경의 중요성과 같은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초기 학생유지모델의 한계를 이해하고 학생 유지의 복잡성에 관해 알게 되면서, 현재는 사회적, 심리학적 문제, 그리고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요인을 더 적절하게 설명하는 경제적인 문제들을 학생유지의 모델로 삼고 있다. 이는, 대학생의 학업중단 문제는 학생의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관련 요인과 사회 관련 요인 등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학생유지를 위한 복합적인 접근을 위해 Tinto는 대학 기관이 ‘이론에서 행동으로(moving from theory to action)’ 옮길 것을 주장한다. 즉,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경험과 가족 맥락의 영향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적절한 지원방안과 프로그램을 구안해야 하며, 강의실내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의 학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학업유지와 관련하여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수경험도 부

족하고 학교와 유대가 낮은 신입교수를 1학년이나 대형 강의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배치에 대한 부분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학이 기관차원의 행동을 하여 정책에 영향을 줌으로써 대학의 학업유지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21].

국내에서는 대학생의 학업중단과 관련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학업중단과 관련한 대학기관의 특성을 분석하는 이병식[22]의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주로 대학생의 학업중단 및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련된 연구가 주로 진행 되었으며[5][6][8][9][19][23-27], 이 외에 학업중단 개선 방안과 관련된 연구,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28][29]. 연구의 흐름을 볼 때, 연구 초기에는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실제적인 개선방안이나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국내 대학의 학업중단율은 2010년 이후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에서 증가추세이다. 특히, 전문대학의 학업중단율은 일반대학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높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비교하여 2010년 이후로 재적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학교에서 관리해야 하는 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율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한편, 전문대학의 학업중단과 관련한 연구들도 2010년 이후로 늘고 있다. 국내의 주요 학술정보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문대학+학업중단’, ‘전문대학+중도탈락’으로 학술지 논문을 검색한 결과, 전문대학생의 학업중단과 관련한 연구는 2003년 김수연의 연구를 시작으로 2000년대에 두 편이 발표되었으나, 2010년 이후의 논문은 9편으로 전문대학생의 학업중단과 관련한 연구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 1. 대학의 학업중단자수,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율 변화

연도	일반대학			전문대학		
	학업 중단자 수	재적 학생 수	학업 중단율	학업 중단자 수	재적 학생 수	학업 중단율
'17년	87,706	2,050,619	4.3	51,675	677,721	7.6
'16년	86,476	2,084,807	4.1	53,977	697,214	7.7

'15년	86,498	2,113,293	4.1	54,093	720,466	7.5
'14년	82,875	2,130,046	3.9	55,239	740,801	7.5
'13년	84,335	2,120,296	4.0	57,651	757,721	7.6
'12년	84,114	2,103,958	4.0	58,940	769,888	7.7
'11년	82,818	2,065,451	4.0	55,191	776,738	7.1
'10년	81,641	2,028,841	4.0	56,658	767,087	7.4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18).

한편, 대학생의 학업중단은 1학년 시기에 주로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에 따라[19][30], 국내에서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요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8][9][24][31]. 신입생의 자기효능감, 취업전망도, 대학만족도, 대인관계, 학업활동 등이 편입의도, 휴학의도, 자퇴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24], 학업중단의도를 지닌 학생과 학업지속의도를 가진 학생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8][9]. 지방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측 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31]. 대학 신입생의 학업중단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함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관련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학업중단율이 높은 전문대학교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학업중단 요인

학업중단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대학생의 학업중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각각의 원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주로 다루었다. 학업중단과 관련된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개인적 요인과 관련된 심리학적 접근, 학업지속과 학업중단을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는 사회학적 접근, 개인적 요인과 대학기관 요인의 두 가지 상호작용 요인으로 설명하는 상호작용론적 접근 등이 있다[32].

심리학적 접근은 학생의 학업중단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강조한다. 심리적 특성을 강조하는 접근에서는 학업중단이 개인의 결핍과 낙약함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학습과 취업목표의 달성은 학생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관점이다[30]. 심리학적 접근

에서는 지능과 적응력, 자율성, 성취욕도 심리적 변인으로 보았다. 또한 자기조절능력과 자기 확신은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포함시켰다. 자기 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설정하는 목표가 비현실적일 경우 성취를 경험할 수 없으므로 학업중단을 하게 될 위험이 높다[33][34]. 즉,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학업중단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여긴다.

사회학적 접근은 구조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에서 설명된다. 구조기능론적 관점은 학교교육의 결과물을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을 위한 개인들 간의 업적주의 경쟁의 반영으로 간주한다[35]. 교육포부와 직업포부 수준, 부모의 교육 기대수준,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개입 정도 및 자녀교육 형태도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0][36]. 갈등론적 관점은 학생의 학업중단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교육적·사회적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작용하는 더 큰 사회계층화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본다. 개인들과 기관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반복되는 학업중단 방식과 이것이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강화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 유지 또는 학업중단 과정에서 기관의 힘보다는 외부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은 4년제 보다는 2년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고, 전일제보다는 파트 타임 학제를 선택하면서 학업유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2년제와 4년제 대학에서의 경험에 대하여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21].

상호작용론적 접근은 조직뿐만 아니라 학생 동료집단과 학생 하위문화와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 조직 그리고 학생·교수·직원들 사이 역동적 상호작용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성을 강조한다[6]. 학업중단에 관한 상호작용론적 접근은 첫째, 역할 사회화와 개인-역할 조화 개념을 사용한다. 학생이 자신의 역할에 사회화하는 과정은 학교생활 지속 과정에서 중요하다. 학생들은 역할에 보다 밀접하게 동화될수록 학교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반면, 반대로 인식의 분리를 경험할수록 학업중단 가능성이 높다. 둘째, 대학은 공동체와 같으며, 학교에 머물거나 떠나는 과정은 공동체내에서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같다고 주장한다[6]. 즉, 개인의 학문적 통합, 사회적 통합, 목표 및 대학에

대한 헌신이 학업중단을 줄이고 학업의 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반면에 개인이 부정적 상호작용과 경험을 하게 되면 통합은 실패하고, 학문·사회 체제와 멀어지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결국은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는 관점이다[4].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문대학교 신입생들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A전문대학의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각 학과에 설문지 시행에 대한 협조문을 보내어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과정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참여한 후에 그만두어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모든 연구결과는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에 수집된 자료를 폐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렸다. 설문지는 2017년 10월 16일 부터 10월 30일까지 1,500부를 배부하여 1,399부를 회수하였고 회수율은 93.6%이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0부를 제외하여 총 1,369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1,369명 중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6세 이었으며, 18~20세가 74.7%로 가장 높았으며, 21세가 11.5%, 23세 이상이 9.9%, 22세가 3.8% 순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64.9%, 남자가 35.1% 이었으며, 남학생 481명 중 군 미필자가 80.0% 군필자가 20.0% 이었다. 학과계열은 자연과학계열이 42.4%로 가장 높고, 인문사회계열이 37.1%, 공학계열이 17.9%, 예·체능계열이 2.8% 순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구성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 구성 특성

구분	빈도(명)	구성비율(%)	
연령	18~20세	1023	74.7
	21세	158	11.5

	22세	52	3.8
	23세 이상	136	9.9
성별	여학생	888	64.9
	남학생	481	35.1
병역사항	군미필	385	80.0
	군필	96	20.0
학과계열	자연과학계열	581	42.4
	인문사회계열	508	37.1
	공학계열	245	17.9
	예체능계열	35	2.8

2. 측정 도구

2-1. 학업중단의도

학업중단의도 측정 도구는 구자경, 홍진영, 장유진[37]이 청소년의 자퇴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퇴욕구질문지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마음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4개의 문항(예, 학교를 그만두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과 학교를 그만두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 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4개의 문항(예, 언제 학교를 그만둘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중단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자경, 홍진영, 장유진[37]에서 학업중단의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학업중단의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2-2. 학업중단의도 요인

학업중단의도 요인 측정 도구는 박희민[38]이 대학생의 학업중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김수연[6], 변형민[39], 오지혜[40], 김용남[23]의 연구를 참조하여 제작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박희민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은 인구학적 특성 3문항, 개인 요인 15문항, 가정 관련 요인 6문항, 교육기관 관련요인 10문항, 사회 관련 요인 6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38]. 이를 재구성하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인구학적 특성 4문항, 개인 요인 19문

항, 가정 관련 요인 7문항, 교육기관 관련 요인 11문항, 사회 관련 요인 6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학업중단의도에 관한 설문지 내용

변인	하위변인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병역의무, 학과계열	
개인 요인	명목변수	연속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대학에 진학한 동기 지난 학기 평점 휴학경험 및 휴학 계획 자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인 대학만족도 전공이 본인과 맞다고 생각하는 정도 학과를 후배나 친척에게 권유 생각 정도 학과 친구 중 도움 줄 친구 정도
가정 관련 요인	명목변수	연속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과의 거주 상태 가정의 경제수준 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과의 대화 정도 가정의 화목 정도 부모님과 가족이 대학생할 적응 노력정도
교육 기관 요인	명목변수	연속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 수업 이외의 참여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교수 교수로부터 취업과 진학 정보 얻는 정도 지도교수와의 정기적 면담 요구 정도 교수가 진로 비전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정도 전공학과와 교육과정 만족도 대학 교육시설(강의실 및 실습실) 만족도 학과에 대한 소속감 수업 이외의 매력적 활동 정도 교우관계 정도
사회 관련 요인	명목변수	연속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졸업장(학벌)의 중요도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전공학과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전망 정도 전문대학 졸업자의 임금상태 만족도 우리 대학진학이 인생에서 잘한 일로 생각하는 정도

2-3. 학업중단의도 요인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은 측정 문항 간의 내적일관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개인 요인에 대한 신뢰계수는 .61로 나타났으며, 가정 관련 요인은 .87, 교육기관 관련 요인은 .73, 사회 관련 요인에 대한 신뢰계수는 .70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서 Cronbach's α 는 .6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 학업중단의도 요인 신뢰도 계수

요인	Cronbach's α
개인 요인	.61
가정 관련 요인	.87
교육기관 관련 요인	.73
사회 관련 요인	.70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학업중단의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과계열에 따른 학교 학업중단의도 차이 검정은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an을 실시하였다.

넷째, 개인 요인, 가정 관련 요인, 교수와의 관계, 교육기관 관련 요인, 사회 관련 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다중회귀식의 추정방법으로 Stepwise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성별, 연령, 학과계열에 따른 학업중단의도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중단의도는 [표 5]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 연령, 계열에 따라 학업중단의도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중단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3.81, p < .001$). 연령에 따라서는 18~20세에서 학업중단의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1세, 22세, 23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으며($F=9.65, p < .001$), 사후검정 결과 18~20세와 23세 이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에 따라서는 예체능계열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순으로 나타났으며($F=3.19, p < .05$), 사후검정 결과 자연과학계열과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간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 연령, 학과계열에 따른 학업중단의도

특성	구분	n(%)	M(SD)	t or F(p)	Duncan
성별	여학생	888(64.9)	2.60(1.01)	3.81 (.000)	
	남학생	481(35.1)	2.38(.99)		
연령	18-20세	1023(74.7) ^a	2.58(1.02)	9.65 (.000)	a,b,c,d
	21세	158(11.5) ^b	2.51(.94)		
	22세	52(3.8) ^c	2.47(1.04)		
	23세 이상	136(9.9) ^d	2.09(.95)		
학과계열	자연과학계열	581(42.4) ^a	2.44(1.02)	3.19 (.023)	a(c,d)
	인문사회계열	508(37.1) ^b	2.53(1.03)		
	공학계열	245(17.9) ^c	2.66(.99)		
	예체능계열	35(2.8) ^d	2.73(.83)		

2.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8개의 개인 요인, 3개의 가정 관련 요인, 9개의 교육 기관 관련 요인, 5개의 사회 관련 요인 총 25개의 독립변인들 중에서 학업중단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VIF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의 공차한계 값이 0.1보다 크고 VIF값이 1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본 회귀분석 결과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1. 개인 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8개의 개인 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중단의도 설명력(R²)은 총 변량의 35.9%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52.56, 유의확률은 .000으로 본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요인 중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전반적인 대학만족도(B=-.362, p<.001), 전공이 본인과 맞다고 생각하는 정도(B=-.432, p<.001), 학과를 후배나 친척에게 권유 생각 정도(B=-.144, p<.001), 자퇴계획(B=.728, p<.001), 휴학계획(B=.111, p<.05)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은

대상자들의 학업중단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회귀계수(β)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독립변인은 전반적인 대학 만족도(β=-.300)이며, 다음은 전공이 본인과 맞다고 생각하는 정도(β=-.192)로 나타났다[표 6]. 그 외에 휴학경험(B=-.027, p=.211), 학과를 후배나 친척에게 권유 생각 정도(B=-.005, p=.816), 학과 친구 중 도움 줄 친구 정도(B=-.043, p=.070)는 학업중단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개인 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 요인 하위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β		
(상수)	5.172	.232		22.330	.000
전반적인 대학 만족도	-.362	.040	-.300	-9.06	.000
전공이 본인과 맞다고 생각하는 정도	-.432	.054	-.192	-8.02	.000
학과를 후배나 친척에게 권유 생각 정도	-.144	.036	-.132	-3.98	.000
자퇴계획	.728	.095	.178	7.70	.000
휴학계획	.111	.048	.052	2.302	.021
R ² = .359 F(p)=152.56(.000)					

2-2. 가정 관련 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정 관련 요인이 학교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중단의도 설명력(R²)은 총 분량의 4.2%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59.828, 유의확률은 .000으로 본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관련 요인 중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부모와 가족이 대학생활을 잘하도록 독려하는 정도(B=-.256, p<.001) 이었다. 이 변인은 대상자들의 학업중단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회귀계수(β)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부모님과 가족이 대학생활적응 독려 정도(β=-.205)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독립변인으로 나타났다[표 7]. 부모님과과의 대화 정도(B=-.051, p=.137), 가정의 화목 정도

($B=-.045, p=.238$)는 신입생들의 학업중단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정 관련 요인이 학교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정 관련 요인 하위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 오차	β		
(상수)	3.550	.136		26.168	.000
부모와 가족이 대학생활적응 도려 정도	-.256	.033	-.205	-7.735	.000
$F(p) = 59.828(.000)$ $R^2 = .042$					

2-3. 교육기관 관련 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기관 관련 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중단의도 설명력(R^2)은 총 분산의 21.6%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93.960, 유의확률은 .000으로 본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 관련 요인 중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전공학과의 교육과정 만족도($B=-.288, p<.001$), 자신이 속한 학과 소속감 정도($B=-.165, p<.001$), 교수가 진로 비전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정도($B=-.105, p=.006$), 대학 교육시설(강의실 및 실습실) 만족도($B=-.085, p<.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대상자들의 학업중단의도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회귀계수(β)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독립변인은 전공학과의 교육과정 만족도($\beta=-.252$)이며, 다음은 자신이 속한 학과 소속감 정도($\beta=-.135$)이었다[표 8]. 신입생들의 학업중단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변인은 개인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교수($B=-.032, p=.271$), 교수로부터 취업과 진학 정보 얻는 정도($B=-.025, p=.750$), 지도교수와의 정기적 면담 요구 정도($B=-.008, p=.270$), 수업 이외의 매력적 활동 정도($B=-.012, p=.425$), 교우관계 정도($B=-.003, p=.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교육기관 관련 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기관 관련 하위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 오차	β		
(상수)	4.704	.121		38.99	.000
전공학과의 교육과정 만족도	-.288	.040	-.252	-7.19	.000
학과에 대한 소속감	-.165	.038	-.135	-4.34	.000
교수가 진로 비전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정도	-.105	.038	-.088	-2.75	.006
대학 교육시설(강의 실 및 실습실) 만족 도	-.085	.033	-.079	-2.57	.010
$F(p) = 93.960(.000)$ $R^2 = .216$					

2-4. 사회 관련 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 관련 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설명력(R^2)은 총 분산의 27.5%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258.435, 유의확률은 .000으로 본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관련 요인 중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우리 대학진학이 인생에서 잘한 일로 생각하는 정도($B=-.457, p<.001$),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도($B=-.257,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대상자들의 학업중단의도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회귀계수(β)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독립변인은 대학진학이 인생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도($\beta=-.405$)이며, 다음이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beta=-.192$)이었다[표 9]. 이외에 신입생의 학업중단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변인은 대학졸업장(학벌)의 중요도($B=-.001, p=.972$), 전공학과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전망 정도($B=-.005, p=.853$), 전문대학 졸업자의 임금상태 만족도($B=-.023, p=.3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사회 관련 요인이 학교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 관련 요인 하위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 오차	β		
(상수)	4.952	.124		40.084	.000
우리 대학진학이 인생에서 잘한 일로 생각하는 정도	-.457	.029	-.405	-15.54	.000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도	-.257	.035	-.192	-7.37	.000
F = 258.435 (.000) R ² = .275					

2-5. 개인 요인, 가정 관련 요인, 교육기관 관련 요인, 사회관련 요인 별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각 요인별로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설명력(R²)은 총 분산의 22.5%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98.935, 유의확률은 .000으로 본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기관 관련 요인(B=-.317, p<.001)과 사회 관련 요인 (B=-.650,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대상자들의 학업중단 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회귀계수(β)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독립변인은 사회 관련 요인 (β =-.354)이며, 다음이 교육기관 관련 요인(β =-.157) 이었다[표 10].

표 10. 개인 요인, 가정 관련 요인, 교육기관 관련 요인, 사회 관련 요인 별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중단의도 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 오차	β		
(상수)	6.056	.209		28.937	.000
개인 요인	-.038	.063	-.016	-.595	.552
가정 관련 요인	-.021	.034	-.016	-.611	.541
교육기관 관련 요인	-.317	.063	-.157	5.016	.000
사회 관련 요인	-.650	.054	-.354	-12.021	.000
F(p) = 98.935(.000) R ² =.22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대학 신입생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업중단의도를 가진 신입생들에게 적절한 개입을 위한 필요성에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에 비하여 학업중단율이 높은 전문대학 신입생의 개인 요인, 가정 관련 요인, 교육기관 관련 요인, 사회 관련 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교직원, 학교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식하고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신입생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학업중단의도가 높았다. 최길성, 이용창의 연구에서 자퇴로 인한 학업중단이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과 일치하는 반면, 김용남[23]과 김수연[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국내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에 대하여 일치된 결과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업지속 비율에 대하여 일치된 결과가 없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연령에 따라서는 가장 낮은 연령인 18~20세군에서 학업중단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학생의 나이는 학업중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학습프로그램에서 완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1][42]. 학과 계열에 따라서는 예체능계열이 가장 높았다. 예체능계열 학생의 학업중단의도가 높은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6][8][39].

둘째, 전문대학 신입생의 개인 요인과 관련된 학업중단의도 요인은 전반적인 대학 만족도, 전공이 본인과 맞다고 생각하는 정도, 재학 중인 학과를 후배나 친척에게 권유할 생각, 자퇴할 계획, 휴학할 계획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이 본인과 맞지 않다고 여길 경우 적성과 진로탐색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학업중단을 선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진로정체성이 미흡한 상태는 학업중단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다[9][43]. 선택한 전공과 본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신입생들에게 자신과 전공 및 전공과 관련한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상담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대학에 대한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정 관련 요인에서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대학 생활을 잘 하도록 독려하는 정도가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화목도, 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습독려 등은 학업중단의도와 유의한 상관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오히려 부모님과 가족이 대학생활을 잘 하도록 독려하는 정도가 학업중단의도와 상관관이 있었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월평균총수입과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와는 유의한 상관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5].

넷째, 교육기관 관련 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전공학과의 교육과정 만족도, 자신이 속한 학과 소속감 정도, 교수님이 진로에 대한 비전과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정도, 대학의 교육시설(강의실 및 실습실) 만족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에 대한 기대와 헌신이 높은 경우 학업중단이 아닌 학업지속가능성이 높다는 국외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44]. 기관특성과 대학생의 학업중단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변인(예를 들어, 학생서비스를 위한 예산집행)이 있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유지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서비스를 위한 예산집행으로 '입학 및 등록 사무소, 학생 상담, 학생 활동'에 투자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45]. 교육기관 관련 요인이 신입생들의 학업지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의 뉴올리언즈 대학교에서는 2012년부터 대학신입생 경험사무국(The office of first year experience: FYE)을 설치하여 신입생들의 학업 중단율을 낮추고자 여러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7].

다섯째, 사회 관련 요인이 전문대학 신입생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대학진학이 본인의 인생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와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업 동기와 학업

중단의도와 상관관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내재적 동기가 학업중단의도에 대한 가장 강한 예측변인으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46],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자율적 동기가 있는 신입생들은 학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47]. 신입생들에게 학생들의 내적인 동기를 일깨우고 보유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각 학과의 교수들로서, 교수들은 학생 지도 시 신입생들에게 대학진학과 대학에서의 경험이 본인의 삶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를 알려주고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어 학생들의 내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을 설명변수로 하여 각 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는, 기관 관련 요인과 사회 관련 요인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나 개인 요인과 가정 관련 요인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각 요인의 하위변인을 설명변수로 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는 개인 요인과 가정 관련 요인에서도 대학 만족도, 전공이 본인과 맞다고 생각하는 정도, 가족이 대학생활을 독려하는 정도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통해 전문대학생의 개인요인이나 가정 관련 요인보다는 교육기관 관련 요인과 사회 관련 요인이 학업중단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중단의도를 지닌 학생들을 학업중단이 아닌 학업지속으로 이끌기 위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의도를 지닌 학생들의 개인특성을 살펴볼 때 나이가 어릴수록 학업중단의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문대 신입생 중에서도 고등학교에서 바로 진학한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선배와의 유대감을 높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배배간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계열별로는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학업중단의도가 높는데,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대학 입학 전에 학습량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상담과 관련한 이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대 신입생들의 가정 관련 요인 중 가족들이 대학생활을 독려하는 정도는 학업중단의도에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전문대 신입생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과 생활을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을 위해 부모 상담이나 부모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결국, 학생의 학업지속을 위해서는 학생 본인, 가정, 학교 모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교육 기관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학업중단의도를 지닌 학생들의 부족한 역량을 진단하고 그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사 및 수강정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학사안내가 필요하며, 장학금 마련 등의 제도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학습복지실현을 위해 튜터링 프로그램과 같은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통해 동료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여 학습공동체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학업중단의도를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과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내재적 동기를 불어넣고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대학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상담 등을 통해 학교와 학생들 사이, 교수와 학생 사이, 학생과 학생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 관련 요인의 영향 요인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학 차원에서 대학의 유관기관과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대학진학이 잘 한 일이라는 확신과 함께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삶에 적용되는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을 학업지속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전문대학의 신입생들이 어떤 이유로 학업중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더불어 학업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의 지도를 위한 실질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즉, 전문대학생의 학업중단의

도와 관련 있는 개인 요인과 가정 관련 요인, 교육기관 관련 요인 및 사회 관련 요인별로 분석하고 학생의 학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어 신입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책을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전문대 신입생의 학업중단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학기관과 학과의 교수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수행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대학의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경기도 소재의 전문대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의 전문대학 신입생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문대학 신입생의 학업중단연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다양한 지역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전문대학 신입생의 학업중단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나, 설문조사라는 제한된 연구방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기에,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드러낸 학업중단의도와 관련 있는 대학생의 경험에 대하여 심층 면담 등을 통한 질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보다 세밀한 경험의 본질을 드러내는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http://kess.kedi.re.kr>~ 교육통계연보, 2018년 12월 28일 인출.
- [2] A. Light, "The effect of interrupted schooling on wages," *J. of Human Resources*, Vol.30, No.3, pp.472-502, 1995.
- [3] S. L. DesJardins, A. A. Ahlburg, and B. P. McCall, "An event history model of student departure,"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18, No.3, pp.375-390, 1999.
- [4] E. T. Pascarella and P. T. Terenzini,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A third decade of research, Vol.2, Indianapolis, Indiana: Jossey-Bass, 2005.
- [5] 김재현, "전문대학생의 개인, 교육기관, 사회적 변인과 중도탈락의도의 위계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제30권,

- 제2호, pp.249-266, 2011.
- [6] 김수연, "대학생 학업 지속과 중도탈락 요인 분석," 한국교육, 제33권, 제4호, pp.33-62, 2006.
- [7] 형정은, 김정섭, "전문대학생의 자기불일치와 중도탈락의도간의 구조관계 분석 - 우울, 진로미결정,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7호, pp.189-220, 2016.
- [8] 박은주, 이혜경, "신입생의 학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K 전문대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제46권, pp.91-111, 2016.
- [9] 박한샘, "지방대학 신입생의 학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C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15호, pp.423-442, 2017.
- [10] V. Tinto,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11] J. E. Hoyt and B. A. Winn, "Understanding retention and college student Bodies: Differences between drop-outs, Stop-outs, Opt-outs, and Transfer-outs," NASPA J., Vol.41, No.3, pp.395-417, 2004.
- [12] 금명자,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4권, 제1호, pp.299-317, 2008.
- [13] 이정기, "대학생 학업 중단의도 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예방 전략의 제안,"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3호, pp.1-24, 2018.
- [14] 양경화,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의 적응강화를 위한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15] M. D. Hoffshire, N. Ralston, and K. J. Lacho, "College freshmen retention: The first-year experience program," *Proceedings of the Academy of Educational Leadership*, Vol.18, No.1, pp.31-35, 2013.
- [16] T. Kantanis, "The role of social transition in students' adjustment to the first-year of university," *J. of Institutional Research*, Vol.9, No.1, pp.100-110, 2000.
- [17] P. Wilcox, S. Winn, and M. Fyvie-Gauld, "It was nothing to do with the university, it was just the people: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first-year experience of higher educ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Vol.30, No.6, pp.707-722, 2005.
- [18] K. Zvoch, "Freshman Year Dropouts: Interactions Between Student and School Characteristics and Student Dropout Status," *J. of Education for Students Placed at risk*, Vol.11, No.1, pp.97-117, 2006.
- [19] 김수연, "대학 학업중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1학년 적응 과정 분석," 진로교육연구, 제5권, 제3호, pp.139-160, 2012.
- [20] V. Tinto,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45, No.1, pp.89-125, 1975.
- [21] V. Tinto, "Research and practice of student retention: What next?," Vol.8, No.11, pp.1-19, 2006-2007.
- [22] 이병식,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기관 특성의 탐색적 분석," *교육학연구*, 제41권, 제2권, p.135, 2003.
- [23] 김용남, *대학생의 학업중단 요인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24] 박은선, 김광현, "학업중단요인 및 대학생활성화요인이 대학 신입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10호, pp.361-384, 2016.
- [25] 소병한, 김재웅,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전문대학 중도탈락 원인 분석: 대학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제33권, 제3호, pp.405-426, 2015.
- [26] 최길순,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즈니스리뷰*, 제3권, 제1호, pp.95-118, 2010.
- [27] 한동욱, 강민채, "교육만족도 관점에서 학생의 학업 중단 의도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1호, pp.63-71, 2016.
- [28] 최길성, 이용창, "D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전문대학 중도탈락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979-987, 2013.
- [29] 김나미, 김효원, "대학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동료멘토링 활용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제12호, pp.875-990, 2015.

[30] V. Tinto, *Leaving Colle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31] 백은주, 남민우, 이해듬, “지방대학 신입생들의 학업 중단 예측도구 타당화,” *순천향인문과학논총*, 제34권, 제2호, pp.233-260, 2015.

[32] V. Tinto, *Student Attrition and Retention*, In B. Clark and G. R. Neave (eds.), *Encyclopedia of Higher Education 3*, New York: Pergamon Press, 1992.

[33] G. G. Darkenwald, “Retaining adult student,”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vocational education, Ohio State University, 1981.

[34] D. R. Garrison, “Dropout in adult education,”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Vol.13, Pergamon, 1992.

[35] W. H. Sewell and R. M. Hauser,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Achievement in the Early Career*,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36] A. W. Astin, “Assessing the Environment,” In *Assessment for Excellence-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New York: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nd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pp.81-93, 1991.

[37] 구자경, 홍진영, 장유진, “청소년의 자퇴 욕구 실태와 관련 특성 연구,” *학교를 떠나려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상담전략*, pp.1-54, 서울: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2001.

[38] 박희민, *전문대학 학생중도탈락 요인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9] 변형민, *전문대학 1학년생의 자퇴 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40] 오지혜, *4년제 지방대학생의 중도탈락 원인분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41] A. Woodley and M. Parlett, “Student drop out,” *Teaching at a Distance*, Vol.24, pp.2-23, 1983.

[42] R. A. Voorheess, “Toward building models of community college persistence,”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26, No.1, pp.115-129, 1987.

[43] 최명선, 강지희, “대학생 중도탈락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7호, pp.203-225, 2008.

[44] V. Tinto, “Promoting Student Retention :

Lesson Learned from the United States,” Presented at the 11th 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Access Network, Prato, Italy, June 19, 2002.

[45] R. Che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college student dropout risks: A multilevel event history analysi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53, No.5, pp.487-505, 2012.

[46] M. Rump, W. Esdar, and E. Wild,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academic motivation on higher education students’ intention to drop out,” *European J. of Higher Education*, Vol.7, No.4, pp.341-355, 2017.

[47] C. F. Ratelle, F. Guay, R. J. Vallerand, S. Larose, and C. Senécal, “Autonomous, controlled, and motivated types of academic motivation: A person-oriented analysis,” *J.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99, No.4, pp.734-746, 2007.

저 자 소 개

송 영 아(Young-A Song)

정회원



- 2002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교육과(교육학 석사)
- 2006년 8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여성건강간호, 성건강 간호, 간호교육

김 신 애(Sinae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 석사)
- 2018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9년 2월 ~ 현재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관심분야〉 : 상담자 발달, 청소년상담, 학습상담